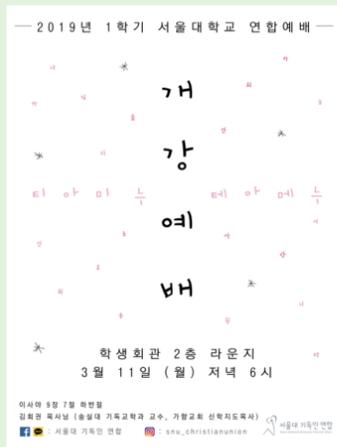


##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개강예배가 3월 11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의 말씀은 김희권 목사님(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가향교회)이 담당한다.



주제는 '타아미누 테아메누(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신뢰스러운 사람이 됩니다)'이며 본문말씀은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이다. 예배 후에는 예술계 식당에서 단체별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 교수칼럼

### 꿈이 있는 자유, 자유케 하는 꿈



꿈에 대한 저의 짧은 목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용기와 소망을 주는 꿈이 있도오.  
여기 이 순간까지 나를 붙잡아 주고  
끝없는 행복을 주는 꿈이 있는 자유...”

10여년 전부터 Facebook에 소소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소박한 삶의 FAITHbook에 주신 은혜를 저의 소중한 젊은 '친구'들, 그리고 (마음만은 젊은) 옛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잠시 추억에 잠겨 예전에 쓴 글들을 돌아보는 중에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른 동명의 찬양

“한없이 자유롭되 꿈을 잃고 방향하지 않으며...  
고귀한 꿈을 꾸며 살되 그 꿈에 구속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 Facebook (2010.06.05)

그 이후로 또 어느새 흘러간 8년여의 시간을 돌아보니 '꿈이 있는 자유, 자유케 하는 꿈'에 대한 힌트를 하나님은 꾸준히 제 삶과 일의 자리에서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꿈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 자들에게 명하신 것 같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어울리는 이들 - 가족, 학생, 교직원, 교수 등 - 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꼭 붙잡고 내놓지 않으려는, 심지어 남의 삶의 운전대까지 내 맘대로 틀어 놓으려는 나의 죄인된 본성은 번번이 성령님의 뜻-이웃사랑-과 충돌하였고, 그 뜻을 고집스레 따르지 않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와 함께 죽었으며, 주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나를 영원히 다시 살리심을 믿을 때에야 온전한 자유의 길이 조금씩 제 삶에도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 5:13,14]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자신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 장기려 박사(1974.08)

소중한 꿈이 있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케 하는 사랑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을 붙들고 '꿈이 있는 자유, 자유케 하는 꿈'을 진심을 다해 구할 때 분명 응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올 한해에도 관악 캠퍼스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송준호 교수(건설환경공학부)

## 편집인의 글

안녕하세요? 진리는 나의 빛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는 이경건입니다(과학교육 박사과정). 2019년 첫 진나빛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학교에 신입 오세정 총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한편 서울대기독교인연합에 지도교수님으로 장정주 교수님과(경영학과) 송준호 교수님께서(건설환경공학부)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서기연 대표로는 유예나 학생이(아동가족14)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이번 진나빛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서기연 지도교수로 섬겨주시는 송준호 교수님의 칼럼과, 2018년 서기연 대표로 섬겼던 양태명 학생의(기계12) 글입니다(1-2면). 졸업생 및 OT준비팀의 글에 이승현(교육11) 학생과 이주원(전기16) 학생의 글을 실었습니다(2-3면). 선교단체에서는 CCC와 UBF에서 수련회 간증문을 나누어주셨습니다(8면). 또한 이번에 새로 동아리방이 생긴 자연대 및 농대 기독교인연합의 소개글을 실었습니다(9-10면).

이번 호의 특별 지면은 먼저 취업 졸업생의 글입니다(6-7면). 먼저 캠퍼스에서 헌신했던 남하늬(디자인09, 12년 서기연 대표), 최성준(기계09, 13&15년 서기연 중앙위원), 모영화(영어교육10, 13&15년 서기연 중앙위원) 선배들이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고민을 하였는지 진솔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작고하신 이종웅 목사님(토목63)의 일대기입니다(4-5, 10-11면). 이종웅 목사님께서 서울대 캠퍼스 사역에 평생 헌신하시고 이화여대 등의 다른 캠퍼스에서도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주셨습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고자, 대학촌교회 유은상 원로장로님의 조사(弔詞)를 그대로 실습니다.

마지막 12면에는 2019년 제23회 서기연 새내기 신앙OT의 현장 사진을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진나빛은 독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욱더 새로워지고자 합니다. 매 호마다 구성될 특별 지면의 주제에 대해서, 혹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경우 부담없이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진학(만)하면 맘껏 누리리라 다짐했던 '자유'로운 삶을 향한 새내기의 분주한 날갯짓이 올봄에도 캠퍼스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뜻이나 입시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캠퍼스에서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직접 쥐어잡는 이른바 '자유'의 삶이 갖는 뚜렷한 한계와 공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취방에서 게임만 하거나, 대인 관계나 그룹활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학업이나 진로탐색에 대한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동기부여는 좀처럼 찾을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학생들의 고민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자유'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새장을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 새들이 방금 벗어난 억압의 새장, 즉 fly free 'from'에 무게를 두지만, 막상 그 새들의 궁극의 목적지나 방향, 즉 fly free 'to'에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며 날갯짓을 할 수 있다 해도,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자유로운 비상이 아닌 고단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보내는 여러분 인생의 짧고 소중한 시간이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해 자유롭게 비상하는 시간, 즉 '꿈이 있는 자유'를 한껏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을 거치며 찾은 인생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고, 졸업 후 저는 이 꿈을 향해 열심히 날갯짓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수로 일하는 삶의 기회가 제 앞에 열린 이후, 스스로 찾은 소중한 꿈을 향해 운전대를 직접 잡고 달려가는 것으로도 여전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칠만큼 소중한 고귀한 꿈이라 여겼던 것들도 세상의 여러 유희와 위협에 의해 언제라도 헛된 무상으로 변질될 수 있고, 심지어 나를 거꾸로 구속할 수 있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나의 죄인됨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스스로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야 비로소 날 '자유케 하는 꿈'을 꿀 수 있음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송준호 교수
- 편집인의 글
- 2면 서기연대표 이임사 ... 양태명
- 졸업생의 글 ... 이승현
- 3면 OT준비팀의 글 ... 이주원
- 4-5면 이종웅 목사 추모글1 ... 유은상 원로장로
- 6면 취업졸업생 특별기사 ... 남하늬
- 취업졸업생 특별기사 ... 최성준
- 7면 취업졸업생 특별기사 ... 모영화
- 독자기고란
- 8면 수련회 간증 ... 김혜민
- 수양회 간증 ... 윤소영
- 9면 자기연 소개글 ... 유상원
- 농기연 소개글 ... 최하영
- 10-11면 이종웅 목사 추모글2 ... 유은상 원로장로
- 소식
- 12면 2019 새내기 신앙OT

## 서기연 대표 이임사

##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마을을 서성이며 이집 저집 구걸하러 돌아다니던 거지 앞에 황금 마차가 내려옵니다. 님은 황금 마차에서 미소를 지으며 내려와 거지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님은 느닷없이 묻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는 얼떨떨하게 서 있다가 전대에서 작디작은 낱알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님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훌쩍 떠나버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즈음, 거지가 자신의 누더기 속에서 황금 낱알 하나를 발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놀라움과 뉘우침에, 그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년아 울더라도 부려야 한다』라는 책에 인용된 기탄장리의 시한 편을 줄글로 요약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해서 콜링을 받을 때면 종종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1년 전쯤에도 여유가 없고 팍팍한 제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털어도 얼마 안 나올 시간과 에너지이지만 주께 드리면 주님이 황금으로 돌려주시리라는 생각을 하며 서기연 대표 자리를 맡았습니다.

4학년을 마무리하고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며 맡았던 서기연 대표의 자리가 항상 즐겁진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콜링을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는 서기연 대

표를 하는 바람에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제 주머니에 황금 낱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담아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도전했던 기억들, 오며 가며 수고한다고 응원하며 건네주던 말들과 같이 소중한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었다면 누릴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서 베풀어주셨던 위로, 일을 이루시며 보여주셨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분의 나라는 받았던 다른 것들보다 훨씬 귀한 것들입니다.

서기연 대표를 내려놓을 뿐 아니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대학 생활 전반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묵상 모임 참석부터 단기선교를 결정하는 것까지 주님은 부르시고 저는 순종했던 크고 작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쉬운 적도 있었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주님은 항상 제가 드린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이런 순간들은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놓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캠퍼스를 떠나는 지금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시간을 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신의 계산과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내어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던 캠퍼스 안의 하나님 나라가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양태명(2018 서기연 대표, 기계12)

## 졸업생의 글

## 졸업하며



끝. 8년이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 교육학과 11학년, 예수전도단(YWAM) 소속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11학년(!)으로 입학했으니까, 남들보다 두 배 시간이 걸려 졸업한 셈입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모두 4년만에 졸업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규학기 졸업은 생각보다 힘들답니다(헷). 변명을 하자면, 2년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2년은 역사교육을 복수전공하며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또 계절학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것도 한몫 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곧 설명할게요.

섬김. 8년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애기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두 공동체가 있는데요. 예수전도단에서 저는 리더였고, 학생대표였습니다. 후배들을 만나 밥을 사고, 리더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예배인도를 맡으며 찬양 콘티를 짜고, 전도여행을 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매주 주일이 되면, 저는 인천과 용인의 고등학교들을 방문하며 함께 기독교공동체를 꾸렸어요. 하임, 코람데오, 여디디아... 그 공동체들의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고 웃고 예배하고 놀면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놀라움. 그 놀라운 시간들이 제 믿음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계좌에 30만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희를 초청하시죠. "승현아, 난 네가 전도여행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300만원을 어떻게 모아요ㅠ - 하지만 점점 그렇게 되물기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낯선 곳으로 저를 던지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고등학생들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년차만에 믿음을 가르치고, 아픔을 듣고, 바닥에서부터 캠프를 준비하고, 서로 다른 학교들이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 - 어느 하나도 낯설게 시작했지만, 제게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을 뜨겁게 품으며, 사랑이란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지침.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 스펙도, 모아둔 자본금도 없이 졸업하지만, 아마 다시 살아도 이 길을 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침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일'이더라고요. 연락이 오면 언제든 밥 약속을 잡고, 제 시간을 빼내는 일에 지침입니다. 6년간 인천과 용인을 가면서 주말 없이 사는 데 지침입니다. 다음 학기에 함께 리더하자고, 전도여행 가자고, 하나님을 더 알자고 초청하다가 거절당하는 데 지침입니다. 우울함에 매여 학교 상담소를 방문하고, 혼자 산책하며 평안을 찾고, 그러면서 "난 이제 충분히 했어", "사랑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 그래서 마음이 찢렸습니다. 예수님의 사

랑은 쿨하지 않습니다. 중도포기하지 않는, 불편함을 무릅쓰는, 구질구질한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면 지치는 사람인데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나요? ...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1월 한달간, 탄자니아로 마지막 학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명의 사람들과 구질구질하게 부대끼고, 웃다가 울다가 속상해하다가 사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달 내내, 자유함에 겨워 춤을 추었습니다(네, 진짜 춤이요). 사랑하면 지침입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행복해졌습니다.

용기. 그래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지침 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려는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혼자가 되기, 쉽게 머물기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스로, 쉬운 사랑만으로 삶을 채우며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 보다는, 탄자니아의 불멸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저 오늘은 죽을게요" 하고는 죽은 듯이 쉬고 싶습니다. ... 그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면,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헷).

이승현(교육11)

## 이준비팀의 글

## Somebody to Love, to Love Somebody



2018년을 뜨겁게 달군 영화 <보헤미안 랩 소디>를 아시나요? 영화의 예고편과 시작 부분에서 나오는, 밴드 Queen의 대표적인 명곡입니다.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끝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하며, 하나님(Lord)께 간구하는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죠. 노래의 초반 부분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Lord what you're doing to me  
 주님 제게 무얼 하시는 건가요  
 I have spent all my years in believing you  
 난 당신을 믿으며 모든 나날을 보내왔지만  
 But I just can't get no relief, Lord!  
 난 안정을 얻을 수조차 없군요  
 Somebody, somebody  
 주여, 누군가, 오 누군가를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누가 내게 사랑할 누군가를 찾아줄 수 있나요

이 가사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가사에 격하게 공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공허함을 연애로 채우려는 것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땡깡부리(?)는 철없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랑할 누군가'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오티의 주제인 'What is Love?'와 일맥상통하는 질문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또는 갈망하는) 사랑은 아무래도 초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순간적인 설렘, 격양, 온몸이 불타는 듯한 기분, 숨막힐 듯한 떨림, 바라만 봐도 솟구쳐 오르는 행복. 이런 것들로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의 감정적인 영역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사그라들죠. 사랑의 본질이 감정이고, 그 감정이 영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가사처럼 감정적으로 '사랑할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다녀야죠. 하지만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평생 일회성 연애만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노래도, 자신에게 하는 위로(또는 자기합리화)와 언젠가 언젠가 된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감정이 부정적이고,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닐 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서기연 오티에는 somebody to love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to love somebody를 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앞장서서 새내기과 관계 맺고 사랑하려고 하는 케어팀 사람들이죠. 새내기가 누군지도,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인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사랑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케어팀 사람들에게 19학년 새내기들은 '누군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어 그들을 알고, 관계 맺으며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불편함과 거

절감을 감수하고 다가가려 하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Somebody to love를 단 한 명이라도 찾는 것도 어려워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또 왜 to love somebody를 할까요?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케어팀 모임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케어팀에 왜 들어왔니?'라는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죠. 저는 2017년 서기연 오티에서 처음으로 케어팀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교단체 선배들이 추천해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한 분들도 있고, 자신이 새내기 때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싶어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힘썼던 경험이 없어, 품고 사랑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 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 해봅시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사랑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노래 가사에 나오는 사랑은 아닐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11)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이 말씀 말고도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11절에 나오는 '이같이'의 내용을 새번역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일 4:9~10, 새번역)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어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죠. 우리의 어둠함과 상관없이 '조건없는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에는 사랑의 더욱 구체적인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이 쏟아져 나와 숨이 막힙니다. 그만큼 사랑은 짧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며,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과연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만 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칠수록 자신의 사랑이 성경에 써 있는 사랑과 다름을 더욱더 느낄 거예요. 다음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마는,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롬 6:20~21, 새번역)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깨어진 우리는 그 속성을 닮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함과 상관없이 그냥 못한다는 것이죠. 순간의 열매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 즉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다음에 완전 반대인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삯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2~23, 새번역)

사랑에 관한 여러 이야기는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일뿐만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죠. 이 구원 안에는 칭의, 성화, 영화라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성화는 살면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또 자신이 본래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자였지만,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죄 사함, 즉 칭의를 바라보고 회복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과정을 평생 거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죄가 사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가 사랑'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과정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이죠. 이 오묘한 이야기를, 다음 말씀이 잘 정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 3:10, 12, 새번역)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것을 붙들려고 오늘도 쫓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존재'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전하려 합니다. 이제 갓 청소년을 졸업하고, 수많은 가치관에 혼란스럽고 중심을 지키기 힘든 세상(또는 서울대)에 갓 발을 디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덧붙이는 말: 빌립보서에 관한 인사이트를 주신 선교단체 선배 경찬이 형에게 감사드립니다 :)

이주원(전기16)

## 이종용 목사님 추모글

## 하나님의 사람 이종용 목사, 그의 삶을 추모하다



이종용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65년 내가 대학 2학년 때 그리고 이 목사님 대학 3학년 때였다.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 모임에서였다. 오늘까지 50년을 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정을 나누어 온 사이이다.

그를 한 마디로 이야기해야 한다면, 이종용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땅에서 75년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향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이종용 목사님 75세 되던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이 땅을 떠났다.

## I. 예수를 주로 영접하다

이종용은 1944년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전역이 궁핍과 빈곤에 시달리던 때 태어났다. 해방 후 이 나라를 휩쓴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6.25사변으로 인한 한국전쟁, 이로 인한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소년기를 보냈다.

이종용 소년은 그 속에서 자라던 가정은 가부장적 유교질서가 매우 확고히 지켜지는 엄한 가정이었다. 엄한 이 씨 가문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가 살던 집이 마포구 서교동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교동 교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들리는 찬송소리가, 기도소리가 죽은 영혼들 속에 생명의 싹을 틔웠다. 바람 같은 성령이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 소년 이종용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움돋게 하고 잎이 피어나고 큰 나무로 자라게 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 II. 서울대학교 공대 기독교학생회와 기독교학생 연합회 일꾼이 되어

## 1. 공대 기독교학생회장이 되어

196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과에 들어온 후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열렸다. 학문의 세계가 그랬고 팔도강산에서 올라온 자긍심으로 가득한 영재 친구들이 그랬고, 먹골에 자리한 공과대학 캠퍼스와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 들어와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가 그랬다. 뜨거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이종용 학생도 여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공대 기독교학생회 준비모임이 만들어졌다. 당시 육사를 졸업하고 초급장교로 서울대학교 전자과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었던 김재창씨가 준비 위원장을 맡아 공대기독교학생회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김재창씨는 후에 4성 장군이 되어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국가에 헌신하였다. 그 때 준비위원으로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다. 교수님들 가운데 우형주(전기과) 윤장섭(건축과) 안철호(토목과) 유수안(공교과) 등 기독교수님들이 지도교수로 여기에 참여하였다. 1965년 10월 25일의 공대 기독교학생회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맡아 큰 감명을 남겨주셨다. 공대 기독교학생회의 첫 회장으로 이종용 학생이 뽑혔다.

## 2. 김덕영 권사님을 만나다

공대 기독교학생회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대 가까이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진 서울여대의 학장이신 고향경 박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 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여대도 초창기여서 이웃을 배려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 일을 옆에서 지켜 본 서울여대 당시 종교부장으로 섬기고 있던 권희진이란 농촌과학과를 다니던 자매가 거절을 당하고 초라하게 돌아가는 이들이 매우 딱하게 보였던지 이종용 학생 일행을 뒤 따라와서 휘경동에 가면 김덕영 권사님이 계신데 이 분을 만나보라는 조언을 주었다.

김덕영 권사님은 도움을 구하는 이종용 학생에게, 그 만남의 첫날부터 권사님이 74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 날까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도움이 되셨다. 권사님은 일찍이 평양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 가운데 하나인 보성여학교에서 예수의 정신을 배웠고 신학문을 만나신 분이였다. 예수에 대한 남다른 열정, 불같이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선교사가 되었고 만주와 러시아령인 연해주에서 선교사로 젊은 날을 보내셨다. 특히 나라가 망하고 고국을 떠나 이 지역에 이주해서 유랑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분은 세계를 보는 국제적 안목과 역사적식을 가지신 분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대학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였다. 한 때 서울여자대학의 이사로도 섬기셨다. 경제적인 안목도 높으신 분으로 독립문표 메리아스 회사를 창설했는데 당시에 업계에서 제일 높은 수익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시키셨다.

이 회사 곁에 자기 주택이 있었는데 그 때 그분의 가장 큰 선교적 관심은 그가 사시던 지역에 있었던 대학들의 복음화였다. 육군사관학교, 서울여자대학, 경희

대학, 외국어대학 그리고 서울공대의 복음화는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이들 대학들 가운데 가장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던 대학이 서울공대였는데 접촉할 방법이 없어 늘 고심하던 중에 이종용과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버선발로 뛰어 나와 이들을 열싸 안으신 것이다. 이 일후 김덕영 권사님은 이종용 학생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서울공대 기독교학생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일후 얼마지 않아 독립문표 메리아스 회사에서 자기의 지분을 찾아 서울 공대 바로 앞에 500여 평의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성화원이라 이름 붙인(혹은 글로벌 하우스라고 부름) 2층 건물을 지으셨다. 한 100명이 들어가는 예배실과 친교실, 식당, 손님들이 잠시 거할 게스트룸 그리고 자기가 묵으실 주거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당시 공동동 서울공대가 있었던 지역의 주변은 교통이 매우 불편했고 이렇다 할 병원이나 의원이 없었는데 앞으로 원하는 의사가 있으면 글로벌 하우스에 병원설비를 할 수 있도록 공간도 구상해서 넣으셨다. 사랑에 넘치는 기독교 학생 회관이 세워진 것이다. 이 성화원에는 항상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식견을 가지신 상담자가 있었고, 언제나 따뜻한 차와 간단히 먹을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종용 청년이 믿음의 어머니 김덕영 권사님을 통하여 깊은 믿음의 안목을 얻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났다.

## 3. 서울공대 기숙사에서

서울공대의 기숙사는 예수의 바람, 생명의 바람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공대 기숙사 112호실 이종용 회장의 방에는 기독교학생들로 넘쳤다. 당시 그의 후배 이요한 선교사는 그들의 다짐을 ICAN 이란 약어로 표현했는데 거꾸로 읽으면 화학기호로 소금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하여 살기,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뜻하는 말로 썼다고 한다.

이전에는 이 대학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공학적 이론이나 수학적 공식들을 하나님처럼 신뢰했다. 한편으로 많은 학생들은 낙관적인 인간 이해, 장래에 대한 높은 꿈들,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 이런 것들에 취해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취 뒤에 오는 허무와 부질없음 그리고 삶의 무의미를 고통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학생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기독교학생회가 출발하고 기숙사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난 후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다른 가능성이 열렸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분 앞에 작고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죄악된 인간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면 그의 아들 예수를 주로 믿으면, 비록 흠으로 빚음을 받은 우리라도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이 한 줄기 빛처럼 어두움을 몰아내는 생명 운동이 되어 밀려들었다.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 매일 새벽 공대 뒷산에서 15-20명 정도가 모였다. 매일 한 번씩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앙강좌를 개최했다. 연세대의 한태동 교수, 김형석 교수 등이 공대 기독교학생들이 주최하는 모임을 열심히 도와주셨다. 공대 기독교학생회 오행재 교수(응용 수학과), 유수안 교수(공업 교육과) 등을 중심으로 일 주일에 한 번씩 성경공부 모임도 열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하는 산업 선교회에도 견학하는 일들도 했다.

하나님께서 이종용 회장과 그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불 같이 뜨거운 열심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을 서울대 복음화에 쓰셨다. 그 후 세월이 지나 반백년을 넘긴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때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옛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을 들으면 경이롭기 까지 하였다. 이종용 회장에게는 구성원들의 마음에 열심의 불을 붙이고, 하나 되게 하고 기독교학생회에 주신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지도력이 있었다.

그가 그 때를 회상하면서 기억했던 믿음의 친구들을 여기 소개한다. 김재창(전자과 4년), 한의일(화공과 4년), 정경조(조항과 4년), 정호(조항과 4년), 이지춘(전기과 3년), 송수호(섬유과 3년), 이정호(광산과 3년), 임용용(조항과 3년), 권영중(조항과 3년), 임강원(기계과 3년), 황충현(토목과 3년), 조영선(금속 3년), 이원수(응용수학과 2년), 이대식(응용수학과 2년), 김종신(기계과 2년), 하병출(공업교육), 이광부(토목과 3년), 최경준(토목과 2년), 이현(토목과 2년), 이정관(금속과 1년), 김희창(원자과 2년), 김진순(공교과), 옥윤태(화공과), 오수건(화공과), 오정일, 조정통, 강수봉, 여인갑, 고왕인, 박영조, 박화수.

## 4.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 연합회의 대표가 되어

당시 서울대학교 내에는 각 단과대학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열심과 사명감이 있는 교수들이 있고 기독교학생들이 있어 기독교인들의 모임들이 있었다. 그러나 4.19를 계기로 약화된 상태였다. 당시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연합활동은 미미한 형편이었는데 몇몇 대학의 기독교학생들이 모여 서울대 기독교학생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새롭게 결성하고 강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1965년 10월 문리대(남상국, 이용모, 서휘덕) 공대(이종용, 김희창) 사대(강세대) 농대(이수근) 미대(박양자) 음대(김민자) 상대(김호경) 의대(이주민, 김보연) 치대(김영주) 법대(추광태) 간호학(김보연) 등 각 대학의 기독교학생회의 대표들이 모였고 이 모임에서 신사훈 박사(종교학과 교수, 문리대 기독교학생회 지도교수)가 설교를 맡아 주셨다. 아직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제비를 뽑아 첫 회장을 세우면 어떻게느냐는 신사훈 교수의 제의를 따라 임원 선출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한 제자를 뽑아 세우는데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를 구한 후 제비를 뽑아 맞디아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 교회사적 선례를 따른 것이었다. 공대회장 이종용이 선택을 받아 서울대 기독교학생 연합회 회장으로 1년 동안 섬겼다.

1966년 4월 이종용을 회장으로 하는 서울대 기독교학생 연합회 임원진의 수고

로 첫 연합 수련회를 열었다. 삼각산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열린 이 집회에는 거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참여를 했고 모인 숫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서울대 총장이신 유기천 박사도 방문하셨고 공대의 우형주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의 교수들도 찾아 오셔서 함께 해주었다. 기독교문화에서 이응호 회장과 임한수 총무도 함께 찾아 주셨다. 국제 기드온협회 최창근 장로도 여러분의 기드온협회 인사들과 함께 오셨다 물론 김덕영 권사도 오셨다.

이 모임을 통해서 서울대 기독교학생연합회의 새로운 연합의 모델이 제시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서울대 내의 모든 단과대학들이 당시 지역적으로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 분리된 캠퍼스에서 공부하던 때 서울대의 기독교학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을 확인하고 같이 추구해야 될 영적 운동의 목표를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회장 이종용의 리더십과 그의 믿음의 친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신 것이다.

1967년 서울공대 캠퍼스 내에 2000평 쯤 되는 대지를 허락받아 한 250평쯤의 공대 교회가 건립되었다. 국립 대학교의 역사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공대의 기독교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이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덕영 권사를 이종용 학생이 처음 만나던 날 육사에 이어진 교회이야기와 이를 위해 장로교 여전도회에서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대에도 교회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 늘 기도해오던 기도의 제물이었는데 이 일이 실현된 것이다. 이 건물의 설계는 기독교학생회 지도교수의 한 분이셨던 건축과의 윤장섭 교수가 해주셨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헌금은 했지만 건축비용은 대부분 김덕영 권사, 최창근 장로, 김항복 장로, 김화영 장로 등 기독교 실업인들과 몇몇 교회에서 헌금해주셔서 충당하였다. 당시 이량 교수가 공대학장이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를 승인했고, 총장이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유기천 박사가 이를 허락해서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이종용 회장이 졸업하고 난 후 그의 후임 회장인 이완수 회장 때인 1967년 10월에 완공되었다. 국립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 III. 대학총교회와 서울대 선교

#### 1. 대학 졸업 후 서울대복음화를 위한 기도회

대학을 졸업한 이종용은 ROTC로 육군 공병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그가 군에 봉사하는 동안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 건설 등에 관여했다. 그 때 그의 건강상 이유로 복무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소 일찍 전역하였다. 본격적으로 신촌로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사업에 손을 댄 것은 바로 이때의 일이었다. 서점을 열고 뼈빠용이란 상표의 아동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도 만들었다. 무엇을 하던지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품과 어려움을 돌파하는 추진력, 변덕이는 아이디 어들을 통해서 사업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 때에도 옛 캠퍼스에서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이 주일 오후면 모여 함께 모교 서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 한 때는 비좁은 나의 셋집에 모여서, 한 때는 광화문 교육회관에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 모여서, 한 때는 신촌로타리 이씨네 빌딩 3층 이종용 집사실에서 주일 오후 3시 쯤 모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견들을 나누었다. 옛 친구들이 졸업 후 유학을 떠나고 군에 가고 각지에 흩어졌다. 서울에 남아 있던 친구들이 모였는데 7,8명쯤이 모였다. 이종용, 남상국, 이용모, 서휘덕, 신현웅, 유은상 등이 모였다. 이종용 집사실에서 주일 오후 기도회를 모일 때면 민 병건 사모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마음 편하게 불편 없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원열집사, 부열집사, 향진선생이 아직 어릴 때인데 그리고 당시 충주시하의 시댁 어른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결코 우호적인 때가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평온한 기도처소를 얻었던 것은 사모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이었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힘든 때에도 민병건 사모에게서 불안한 모습,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사모님은 항상 침착하고 항상 평온하고 항상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필요할 때 단호하신 분이시다. 이종용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여러 축복 가운데 가정의 축복은 빼놓을 수가 없다.

#### 2. 대학총교회 시작과 떠남

1974년 서울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승동에서 관악산 밑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흩어져 있던 캠퍼스들이 한곳으로 모이게 된 것이다. 같이 모여 모교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던 친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새 캠퍼스 앞에 대학 내의 기독교인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는데 뜻을 모았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 사도신경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초대사도들의 신앙전통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적 자세를 이어간다는 것 등 복음주의적 신학적 기초를 분명히 하는 초교파적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학총교회로 하기로 하였다. 초교파적인 교회를 생각한 것은 대학선교를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라고 믿었기에 교파를 너무 앞세우면 캠퍼스내의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 됨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서였다. 물론 이종용 집사가 대학총교회 설립에 앞장을 섰다. 당시 나는 독일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한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약속 받은 터여서 이제 떠나기까지만 잠깐 섬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대 졸업생들 여러분이 참여 하였고 문리대 졸업생들도 여럿 참여하였다. 지금의 신림 전철역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세워진 작은 2층집의 한 40평쯤 되는 위층을 보증금 얼마를 내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빌렸다. 당시 교회공간을 빌리기 위한 보증금 대부분을 이종용 집사의 헌금으로 충당했다. 1974년 11월 마지막 주일 날 오후 첫 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장신대의 한철하 교수가 맡아 해주셨고 앞으로 교회 담임은 총신대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는 이진태 박사가 맡아 수고하기로 하였다. 첫 전도사로는 문리대 철학과를 나온 당시 총신대생인 오성중 동문이 맡았다.

그런데 교회 시작 후 3개월이 지나고 담임목사를 맡으셨던 이진태 박사가 새로 시작된 대학총교회를 떠나야만 되었다. 총신대 교수는 교수와 교회의 목양을 겸해서는 안 된다는 학교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 막 시작된 대학총교회의 교우들이 많이 떠났는데 창립 멤버인 이종용 집사도 떠났다. 가장 형편이나 그가 하는 일들을 위해 피치 못할 이유들이 있었다. 그가 대학총교회를 떠나 있었던 여러 해 동안 모교회인 서교동 교회에 복귀해서 교육관을 짓고 교회의 여러 일들에 헌신적으로 관여했다. 그리고 그가 평소 가졌던 사업적 구상들을 실현했다. 당시 최고급 호텔 수준의 서교호텔을 짓고 운영하였다.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크게 성공을 시켰다. 종합 건설회사를 설립해서 그의 대학 때의 전공과 접목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 외에도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했고 나중에는 신촌 로타리에 크리스탈 백화점을 짓고 운영했다. 한국에 머지않아 큰 재벌의 반열에 들게 될 존재벌이 출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이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대학 때 김덕영 권사는 이종용 학생의 장래와 연관하여 그에게서 크게 성공한 기독교 실업인을 보았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면 그런 말씀도 곧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크리스탈 백화점을 열던 날 개점 예배에 와서 설교를 했던 신목사라는 분의 설교 속에서도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이상적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 3. 다시 돌아와서 대학 선교를 위해 두 번째 부르심을 받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업들에 부도가 난 것이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재무상태가 건실한 편인데, 부도가 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흑자 부도라고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 가운데 몇은 특별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지를 명하셨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삶의 진로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참 준비 중이었는데,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5월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올림픽 준비위원회의 한 건물에서 어려움 속의 이종용 집사를 만났다. 88올림픽의 홍보조정관과 외신지원단장을 맡은 신현웅씨(후에 문화체육부의 차관을 지냄)의 방에서 옛날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시 만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가 시작한 대학총교회에 다시 나와 섬기게 되었다. 전 가정이 대학총교회로 나와 함께 수고를 나누는 자들의 반열에 섰다. 그가 돌아와 서울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한 전선의 선두에 다시 서게 되었다. 1991년 3월 부활절에 대학총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셨다. 부정수표 단속법을 어긴 죄목으로 1990년 5월에서 8월까지 교도소에서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체험하였다. 비좁은 감방에 12명의 죄수들이 수감되었다. 옆으로 누워 갈증을 자아냈던 비좁았던 그 감방에서 그로 인하여 새 일이 일어났다. 감방은 저둡남의 산실이 되었다. 수감자들 모두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 때 일들을 그의 자서전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니』에서 잘 들려주고 있다.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의 약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천적으로 신장에 이상이 있었다. 그 사실을 군에 가서 공병 장교로 근무하는 중에 비로소 발견하였다. 몸이 나빠져 그 상태로 활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사랑하는 동생 한 분이 신장을 기증하여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1993년의 일이었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는 체험을 했다. 수술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아 죽음 앞에 가까이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백지를 한 장 주시면서 이제까지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10사람만 적으라고 하셨다.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이름이 한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원을 드렸다. 다시 생명을 주시면 주신 백지에 전도한 사람들 이름을 빼곡히 채우겠습니다 라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주신 예레미야서 20장의 소명의 말씀을 확실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기에게 부여 주시는 체험을 하였다.

안규리 의사 등 집도한 의사들과 대학총교회 성기문 장로의 부인이신 이해경 의사는 이식 받은 신장을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전문의사들의 예측과는 달리 이식 수술 후 26년을 건강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였다.

성공과 높아짐 다음에 그에게 주신 실패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종용 장로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여셨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다.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다시 보았다. 자기는 흠이요 아침에 꽃이 피어자라다가 저녁에 부질없이 시들어 저버리는 한 포기 풀처럼 허무한 존재임을 보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심판을 면치 못할 존재임을 보았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보았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심을 보았다.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았다. 셋째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그의 부질없는 삶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견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그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심을 보았다.

10-11면 계속

## 취업졸업생 특별기사

##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



안녕하세요, 12년도 서기연 학부대표였던 남하늬라고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학부졸업장만 2개인데, 하나는 교육대학, 나머지가 여기 미대 시각디자인학과입니다. 어영부영 교대를 졸업하고 꿈을 찾아 디자이너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학사편입을 준비했어요. 아직도 정말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후배들이 있겠

죠? 저도 늦게나마 꿈을 발견해서 도전했고, 대학원까지 갈 생각으로 입학한거였는데.. 낮과 밤이 없는 생활이 지겨워 기업에 입사했어요. 6년차, 남의 것(!)을 디자인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입사할 때가 스물 아홉이었는데, 뭔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는 후배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전 삼성SDS를 다니다 카카오로 이직해서 AI 쪽 서비스에 대한 UX UI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다들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엄청 막막했어요. 이 학교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써주지 않는구나,를 여실히 깨달았죠. 저는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했어요. 포폴로 서류도 보고, 직무면접도 봤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소개서였어요. 나를 판매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불편함. 글에 쓰여있는 나와 실제 나의 괴리감. 이렇듯 자소서는 자소설이 되어 자괴감을 부여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백에 취해 쓰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은 후에 밀려오겠지만, 뭐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인데! 이런 자백은 입원면접 때도 빛을 발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라도 봤던 초등임용시험에 대해 결국 실패한것 아니냐는 압박질문을 받았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실패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도전한게 나의 강점을 반증한거다. 이런식으로 대답했더니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나의 약점이 곧 자랑이라는 것이 진짜 진리임을 경험한 순간이었죠.

불합격이라는 말, 저도 지겹게 보아왔어요.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그래서 더 마음만 아픈 그 문자들. 그 때마다 저는 별거 아닌걸로 생각하려 노력하고, 바로 다음 스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엄청 애썼죠. 사탄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하는 소리에 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저도 타고난 우울질이라 매번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는

어려웠어요. 그저 사탄시기에게 낚이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적도 실제로 많고요. 능력이 곧 가치와 같다는 그 속삭임은 코웃음으로 날려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 주세요. 혼자 가지말고 친구와, 선배들에게 조금 더 뻔뻔하게 기대기도 하면서요.

기연이나 선교단체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활용했다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적극적으로 문서 양식 만들어서 혼자 도장찍고 경력 서류로 냈었어요. 회사들은 입사 직전까지는 리더상을 원하잖아요. 사역과 스펙쌓기는 시간 상 양립할 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 부동켜 안고 문제를 해결해나갔던 것들이 결국 면접에서나 입사하고나서의 삶에 분명히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직급으로 나뉘어진 곳에서 위 사람의 말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거든요. 실제로 입사 초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지만, 저는 그것들을 훌러내보낼 수 있는 근육이 있어서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성실함의 근육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때론 너무 버거운 때가 있죠. 교회가 모이는 것은 결국 흠어지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흠어져 복음을 전할 힘을 얻기 위함에 모임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모임을 위한 모임이 너무 많다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기연대표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제가 활용한 건 산학협력 수업이었어요. 산학은 결국 회사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학점을 채울 수 있는 '수업'인거니까. 그리고 산학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입사 때 좀 더 유리한 루트로 지원할 수 있고, 소소하지만 산학 연구비도 주잖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산학수업이 방학 때까지 유지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길을 인도해주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학부 때를 보낸 것 같은데, 입사 후에는 유혹이 더 커져요. 포기할 게 더 많이 생기거든요. 단기 선교에 쓰기 가까운 작고 소중한 나의 휴가들. 풍족한 돈과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는 누리고 싶은 즐거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 선택하지 못하는 인간관계 등등.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나와요. 이직을 하더라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저 근근히 하고 있는 건 아침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예요. 잠깐만 평온하다 다시 분노에 휩싸이는 허약해진 영혼이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렇게 후배들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감사해요. 함께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모두 다 연락하지만 삼겹살이 되어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거예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골 1:9)”

남하늬(12년 서기연 대표, 디자인09)  
연락처(메일) : lepetit626@gmail.com

## 취업졸업생 특별기사

##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한 09학번 최성준입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다음 진로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 때는 JOY선교회 활동과 기연 중앙위원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꿈꾸었고, 실제로 주변 동역자들을 통해 천국을 맛보는 감사한 학부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 넘치는 대학촌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속해있습니다.

그런 제게 참 어려운 주제를 부탁하셨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주제라노. 취업깡패 학과를 졸업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학벌과 인성(?)으로 누가 봐도 큰 어려움 없이 취업했던 저에게, 그마저도 회사를 제

발로 박차고 나온 저에게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써 달라 하시니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많이 다르니, 지극히 개인적인 아래 이야기들을 충분히 분별하면서 쉽게 읽으시고 마음에 크게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먼저, 조금은 진부하지만 진로를 고민하며 한 번쯤은 붙들고 기도해 봤을법한 말씀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길을 그럴듯하게 계획하길 원하듯

저 또한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막 자아를 찾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저는 다시금 제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자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의 날을 꿈꾸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고민하며 2년의 시간을 보낸 뒤, 기대와는 달리 얻게 된 결론은 겨우 ‘아.. 이 고민 죽을 때까지 하겠구나’ 이었습니다. 평생 내 앞길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지금 당장의 부담감은 좀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좀 더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의 선택의 순간에서 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게 주어진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과 제 안에 부여주시는 여러 마음들을 통해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는 복음이 필요한 이웃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선교를 1년 정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선교 지원서를 제출할 무렵, 우연히 한 선배를 통해 예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용전형에 열렬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단기선교나 취업이나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단기선교를 가는 것이 나의 의를 위함이 아닐까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상황이지만 제 상황과 처지에 딱 맞는 다른 길이 주어지며 계획했던 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훗날인 지금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말씀을 좇아 살다보면 분명히 남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준비해야하고,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남들과 비교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다음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세상만사 일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의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이미 세상은 맘몬이라는 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를 이토록 위기에 빠뜨리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도록 한 것도 결국 돈이고, 점점 더 많

은 가치들을 황금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사회에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돈입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학생 때와 가장 크게 바뀐 환경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바로 돈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그리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결국 돈이 된다는 것. 그와 동시에 나의 삶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돈의 가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란 책에서 소개가 되듯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선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취업하게 된 1순위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었던 저에게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그 '일'의 결과는 내게 주어지는 월급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다 보니 과연 더 많은 재물이 내 삶을 구속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위해 제 관심이 흘러가던 중, 성경에 있는 수많은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제 마음에 경고와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였고, 맘몬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

시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캠퍼스에서의 생활이 연습이었다면 졸업 이후의 삶은 실전이라는 말이 참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 미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며 돈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으니 재물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말씀과 경험에 의지하여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최성준(13,15년 서기연 중앙위원, 기계09)  
연락처(메일) : sungjunjoo@gmail.com

## 취업졸업생 특별기사

### 취준을 축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번 화학선배 모영화입니다. 딱히 모범 사례가 아닌데 취업/직장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아마도 제가 제일 만만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하나 참 난감했습니다. 저는 전공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보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랜 기간 캠퍼스에서 더 치열하게 취업에 대해 고민하며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대처럼 보일 것을 각오하고 조심스레 나누어 봅니다.

우선, 아직 취업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단대모임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취업

이 시작되면서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기간을 지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교회조차 안 나가게 되는 사례도 종종 보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도, 월급이나 명예 등을 주로 보고 직업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본인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 단대모임, 교회 활동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인생의 목표와 직업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서기연을 하며 혼자 외롭게 단대방에서 기도하고, 크리스천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누추한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취업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조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누구보다 조금했던 사람이었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처음 취업준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수업을 들으며 막연히 학점에 대해 걱정했던 때부터,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그 시기를 더 즐기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좌절감 때문에 오히려 하루하루를 충만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마땅한 태도이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가기보다는 천천히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6년이나 학교를 다니며 칼출업하고 취업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 서기연 때(??)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일찍 취업한 친구들 중 대부분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했습니다. 일찍 취업하는 게 꼭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정하는 법을 젊은 시절에 미리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일부러 외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찬찬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성경적 직업관은 무엇인지 좋은 강의들을 들으며 공부해보기를 바랍니다.

다 지난 일이라 쉽게 말하는 끈대라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더 부족했던 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후배님들은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영화(13,15년 서기연 중앙위원, 영어교육10)  
연락처(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gxGFuhhb>

## 《진리는 나의 빛》 독자 기고란

서울대학교 학부생 혹은 학내 구성원 분들의 간증 혹은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의 글 기고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글/기독교 단체 소개 및 간증 모두 괜찮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읽는 분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줄 독자 분들의 글을 기대합니다.

문의: 이은혜 학생기자(010-2208-3684, leh1288@snu.ac.kr)

## 수련회 간증

하나님과의 첫 만남  
(feat. CCC 여름수련회)

CCC는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가 열린다. 가장 대표적인 수련회로는 여름수련회, 겨울에 열리는 금식수련회와 기도온 수련회가 있다. 겨울에 열리는 수련회는 영적인 훈련에 더 집중하여 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반면, 여름수련회는 페스티벌 분위기로 진행되어 새친구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CCC 여름수련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 CCC가 모여 함께하는 대규모 수련회다. 평소에는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약 1만 5천 명이 모이지만 작년엔 특별히 CCC 창립 60주년과 제주선교 110주년을 기념하여 EXPLO 2018 제주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제주교회 목사님들과 신도들, 해외 각지에서 온 CCC 현지 간사님들까지 약 3만 명이 모여 장관을 이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Jesus for Jeju, Jeju to Jesus'를 외쳤다.

처음 가보는 여름수련회에 나는 들떠있었다. 그리고 수련회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매일 새벽예배 아래에서 진행된 저녁 집회는 찬양과 말씀은 물론, 간증과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히 채워주었다. 게스트로 초청된 비와이가 간증을 해주었다. 삶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여드린 그는 시련이 왔을 때도 무너

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집회 외에도 교육, 선교 박람회, 제주 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전 세계 22개국의 국가별 부스와 사역 소개 부스로 구성된 선교박람회에서는 해외 문화와 각국의 선교 현황을 접할 수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향한 복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제주 유적지 탐방은 제주선교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제주 땅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음을 느꼈다.

이번 제주 여름수련회는 나에게도 한없이 소중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이 때라고 말할 수 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교회는 꽤 오래 다녔지만, 믿음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기 전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정말 감사하게도 첫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열등감에 빠져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가슴 속 깊은 울림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과의 강렬한 이 첫 만남은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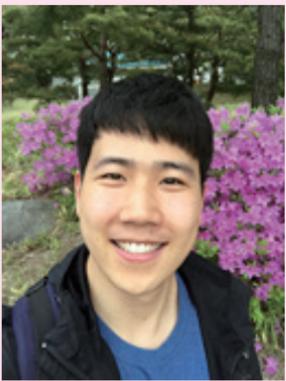
수련회에서 우린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도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 감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하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김혜민(농경제사회17)



## 수양회 간증

##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살롬! 2019년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UBF는 지난 2018년 12월 24-25일 1박2일로 학생 성탄복음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을 부유하게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자 초라

한 말구유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2학기 동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새로 관계성을 맺게 된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성탄복음을 마음속에 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탄복음 수양회는 24일 저녁 새 학생들로 구성된 캐롤밴드 공연과 워십 댄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놀라운 실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강대식 선배님(서울대 공과대학 졸업, 현 아주대 교수)의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과 함께 하고자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끝나고 들은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께 마음의 편지(소감)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24일 저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5일은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진솔하게 나누며 다양한 삶의 아픔과 시련 속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특히 새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는 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며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저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소감모임이 끝나고 이어서 마태복음 2장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최대현 선배님(공과대학 박사과정)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감동적으로 전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의 경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메시지 이후 형제 학생리더들의 성탄연극이 있었습니다. 성탄연극은 '최평범'이라는 대학생이 임마누엘의 의미와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과정

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함께 연극과 수양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복음 수양회를 통해 그 동안 겪은 외로움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통해 이해 받고자 했던 노력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손해의식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 드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상한 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시며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죄인들과 함께 하고자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 동안 관계성을 맺게 된 새 학생들이 꾸준히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2019년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소식을 캠퍼스 영혼들에게 전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윤소영 (사회12)

자기연 소개글

자기연(자연대기독인연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지난 2018년도 2학기부터 자기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물리천문학과 16학번 유상원입니다.

저희 자기연은 서기연에 속한 단대기연 중 하나입니다. 여러 단대기연들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 그만큼 각 과기독별로 하는 활동이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자기연은 크게 5개의 과기독 모임이 있습니다. 물리천문학과부는 크리스피아(ChristPhyA), 수리통계학과 크리스마스(ChristMaS), 화학부는 하연(하나님의 연금술사), 생명과학부는 생기모(생명과학부기독인모임), 지구환경과학부는 지기모(지환부기독인모임)이라 불리는 과기독 모임이 있습니다. 18년도 1학기까지는 각 과별로 모임을 가지다가, 제가 대표를 맡기 시작한 18년도 2학기부터는 자기연 전체모임을 시작하였고, 각 과별 모임은 자율적으로 가지도록 하

였습니다. 그래서 물천부와 수통부는 자기연 전체모임을 세우기로 하고, 화학부와 생과부, 지환부는 각 과별 모임을 집중적으로 세우며 더불어 전체모임에도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연은 언제든지 와서 될 수 있고 편안하게 교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삶 나눔을 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자기연 모임이 캠퍼스에서 지친 친구들의 자그마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기연이 작지만은 많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연에 동아리방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네요. 자기연은 등록 인원 수만 50명이 넘는 큰 규모의 동아리임에도 그동안 동아리방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28동을 재건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대동아리연합회 측에서 504동에 지하에 자동연에 소속된 동아리들의 동아리방을 마련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자기연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자동연 측에 적극적으로 동방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결국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자그마한 공간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12월 중으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지만 일정이 점점 연기되면서 1월이 거의 다 지나간 이 시점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음 학기 개강하고 나서도 동방을 제대로 써보기는 할 수 있으려나 싶긴 하네요.



이번에 자기연에게 동아리방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자기연 전체 모임이나 각 과기독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항상 장소 예약 때문에 문

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동아리에 속해 있음에도 공간적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깊은 유대감이 생기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방이 생기면서 비로소 자기연이 공동체 모임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앞으로 자기연이 걸어 나갈 새로운 나날들이 기대가 되면서 다음 학기 개강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연이 자연대에서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다른 단대기연들 역시 힘들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함으로 모임들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원(물리천문16)

농기연 소개글

농기연을 소개합니다 :)

안녕하세요~ 농기연 대표를 맡고 있는 원예17최하영이라고 합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 분들에게 농기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기사를 쓰게 되었어요~!

농기연(농생대 기독인 연합)은 농생대의 기독인들이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매 주 각자의 삶을 나누며 선후배들이 가깝게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농생대를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농기연 개강/종강예배



농기연에서는 매 학기마다 개강예배, 종강예배가 있습니다! 교수님, 대학원생, 학부생이 모여 예배로 한 학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예배 후에 식교제도 있습니다!

2. 새터 꿀물 봉사



혹시 이번 새터에서 꿀물 드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새터에 참여한 새내기들이 숙취로 고생하지 않도록, 꿀물과 유자차를 타주는 활동입니다.

3. 부활절 달걀 나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을 농생대 구성원들과 나누기 위해, 벨에피나 농식 앞에서 달걀과 말씀 카드를 나누주는 행사입니다!

4. 복음자리



공대, 농대, 생활대, 자유전공학부 기독인 연합과 함께 하는 자리로, 신입생 및 재학생과 기독인 교수님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독인 교수님들이 강연을 해주시고, 저녁을 먹으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번 학기에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 강감찬 텃밭 가꾸기



관악구청에서 낙성대에 있는 강감찬 텃밭을 빌려서, 고구마, 가지, 토마토, 상추 등 여러가지 작물을 길렀습니다. 사실 저번 학기 농사는 망했지만.. 다음학기는 같이 열심히 가꿔보아요^^ 열심히 일한 후 새참도 먹는 쓸쓸한 재미도 있습니다!

6. 수시 면접 전도



혹시 면접날 이것을 받은 친구 있나요?? 수시 면접날 농대 앞에서 힘이 되는 문구, 성경구절과 함께 작은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오늘 아이 면접 때문에 학교에 갔었는데 농기연으로 행복했습니다. 성경말씀과 함께 받은 작은 간식은 떨리고 추운 마음을 위로해주는 영혼의 간식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간다면 꼭 이와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답장도 왔습니다.ㅠㅠ

7. 시험기간 간식나눔



이렇게 시험기간에는, 시험으로 지친 농생대의 학우들을 위해! 당을 채워줄 간식을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8. 지도교수님과의 만남



한 학기에 한번 정도, 동아리 구성원들과 지도교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농기연의 활동 방향 논의하는 등의 시간을 갖습니다. ☑

이렇게 농기연은 농생대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농생대를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농생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함께해요 :) <농생대 기독인 연합> 페이스북 페이지도 구경와주세요~~ (깨알홍보)

최하영(원예17)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베드로를 부르신 우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는데 이종용 장로도 실패 가운데서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 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과 머리의 노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는 대학총교회에서 서울대학교의 캠퍼스에서 그리고 이화대학교 앞에 세운 참좋은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대사단이라는 젊은이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그 때마다 속상한 일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받는 일,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늘 감사했고 늘 기뻐했고 늘 순종하면서 앞으로 갔다.

대학총교회에 다시 와서 많은 일들을 했다. 이종용 장로가 다시 돌아온 후 교회는 활기를 찾았다. 일상성의 타성에 빠져가는 것을 염려할 즈음 그는 우리 모두를 흔들어 깨웠다.

대학총교회와 서울대학 선교에 연관된 일들을 하나로 묶어 기독교 대학총 선교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당시 사단법인의 설립은 문화공보부의 허가 사항이어서 여간 어렵지가 않았다. 법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소유재산이 있어야 되었는데 우리가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고, 당시 이단 종파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얻으면 자기들의 정당성을 국가가 보장한 것처럼 선전을 해대기 때문에 되도록 허가를 절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힘든 때였다. 그런데 그 때 마침 학창시절 기도의 동지였던 신현웅 형제가 대통령의 문화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차라, 그리고 신현웅 형제가 기독교 대학총 선교회의 사단법인 설립이 국가적으로 유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종용 장로가 최고 정책담당자들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개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종용 장로가 중심이 되어 모든 교우들이 녹두거리에 나가 전도폭발 운동을 시작하였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주 앞에 초대하는 일 뿐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교회 내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다. 녹두거리가 찬송으로 가득했고 근처에 시간적으로 교회가 빌린 찻집에서는 복음을 제시하는 분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이른바 전도사가 이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했고 오성중 목사 그리고 교회의 제직들과 교우들이 거의 모두 다 참여하였다.

대학선교가 지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인 만큼 문서선교를 위한 매체의 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의 시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1989년 이종용 집사가 앞장서서 시작하였다. 도서출판 대학총이란 출판사가 그것이다. 매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털어 출판사의 씨 돈을 대었다. 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출판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판사 전화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국에 들렀다. 수요자가 전화번호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 888-9111을 이종용 집사가 택했다. 그의 설명인즉 책은 보급을 해야 하는데 팔아야 가능하니 888 이라했고 91은 구원 이란 뜻이고 마지막 11은 모두 다 라는 뜻이라고 했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전화번호였다. 지금은 그 전화번호가 대학총교회의 대표전화 번호로 쓰이고 있다.

처음 나온 책이 『개혁사상』이라는 신학 계간지였는데 필진으로는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 성향의 젊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김영한 박사가 소장으로 섬기고 있던 한국기독교사상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편집을 맡았다. 이 계간지 이외에도 김영한 박사가 집필한 『현대신학과 개혁신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이복영 장로의 자서전 『그래도 감사하며』, 서울대학교 기독교 교수들 가운데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신앙간증집 『과학과 신앙』, 영어 성경공부 시리즈도 펴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창세기 산상수훈 등이 나왔다. 영어 성경공부 교재로 극동방송 등 기독교 방송에 필자들이 직접 나가 방송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몇 번씩 책도 나왔다. 히틀러 치하에서는 고백교회에 참여했고 2차 대전 후에는 독일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독일의 개신교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힘썼던 오토 디벨리우스의 『제자들』, 동독에 남아 공산치하의 박해 밑에서 교회 섬겼던 부란덴부르크의 주교 알브레히트 쇠헤르의 자서전 『그러나 그 시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등이 나왔다.

대학총교회는 대학생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진 교회여서 항상 젊은이들이 많았고 특히 그 앞에 있는 서울대학의 학생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로 서울대 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거의 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서울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 초창기부터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신앙 생활관을 운영해왔다.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장래 진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였는데, 언제고 주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들을 힘들게 했다. 전세나 월세를 살아가야 하는데 자주 이사를 다녀야만 되었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몸 바쳐 일하고 싶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만 되었다. 이 문제에 착안한 이종용 장로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교회의 청년들을 모아 공동 주택조합 형식의 모임을 만들었다. 전세 정도의 돈으로 자기 집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교회 가까운 곳에 한 필지의 대지를 구입하고 신앙 공동체적 성격을 살려서 15채의 작은 주택이 들어가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대학촌빌라라는 이름을 붙인 건물을 지어 입주하게 하였다. 이 집에 입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나오고 교사들이 나오고 여러 명의 교수들이 나오고 외교관이 나왔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지금은 지도적 위치에 서서 빛 되어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당시의 유럽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였

고 이를 주택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해결했던 사례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종용 장로가 대학촌 언덕에서 “사랑의 벽돌쌓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다.

#### IV. 서울대의 전도사가 되어

##### 1. 총동원 전도집회

수술대에 올라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들을 지켜 드리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의 캠퍼스에 뛰어 들었다. 서울대학 내에는 이미 기독교 학생 조직들이 있었고 기독교 교수들이 있어서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종용 장로가 거기에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 일할 수 있을까? 교수도 아니고 학생의 신분도 아니었는데 캠퍼스에 손님 자격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심부름꾼으로, 기독교인 교수들이 인정해준 간사의 신분으로 캠퍼스에 들어갔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주신 종의 신분으로 그의 일꾼의 신분으로 캠퍼스에 들어갔다. 그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했다.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 할 것 없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캠퍼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 이미 있었다. 캠퍼스에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교수 가운데는 이미 있었다. 그가 삶의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존경했던 영문과의 김석산 교수, 화학교육과의 유규환 교수, 통계학과의 박성현 교수, 언어학과의 문양수 교수, 남승호 교수, 컴퓨터학과의 박근수 교수, 화학과의 김병문 교수, 홍종인 교수, 무기재료학과의 강신후 교수, 물리학과의 제원호 교수, 조선공학과의 장창두 교수, 화학공학과의 현택환 교수 미술대학의 김병중 교수 등. 이외에도 서울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화학과에는 25명의 교수 가운데 15명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다. 1994년 총동원 전도 집회를 계기로 서울대 복음화에 참여하신 교수가 130여명 쯤 되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열고 이종용 장로를 받아들였다. 교수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이종용 장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서울대의 106학과 1400명이나 되는 교수들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홀대도 받고 멸시도 받고 때로는 환영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교수 기도회와 기독교 학생 연합 대표들이 1995년 5월 대학의 축제기간에 서울대 총동원 전도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종용 장로가 이 총동원 전도 집회를 사실상 구상하고 이를 밀고나갔다. 서울대학교에서의 5월의 학생축제가 이제까지는 캠퍼스의 곳곳에 텐트를 치고 술을 팔고 취해서 흥청거리는 자유를 빙자한 방종의 축제였는데 이런 흐름의 진로를 바꾸어 놓기 위한 땀을 쏟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학 안과 밖에서 이 일을 위한 기도회원들을 모집했고 이일에 협력하고자 하는 분들의 헌금도 이어졌다. 5월 15, 16일에 있을 전도집회의 강사로는 『땅 끝에서 오다』의 저자 소설가 김성일 장로를 모시기로 했고 말씀의 주제는 “장자권의 회복”으로 정했다. 기독교 학생들 가운데 300명을 전도자로 세우고 2인 1조로 하여 150개조를 편성해서 캠퍼스를 전도하며 누볐다. 이 학생전도자들은 모두 “땅 끝에서 오다”라는 문구를 감청색 글씨로 그 위에 프린팅한 흰 셔츠를 입게 했다. 온 대학 캠퍼스가 “땅 끝에서 오다”라는 문구가 적힌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캠퍼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뒤에서 모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확신에 넘치는 복음 제시로 캠퍼스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5월 15, 16일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김성일 장로의 전도 강연에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강연이 2시간 30분간이나 이어졌는데 여기 모인 청중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경청했다.

이 모임은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복음을 통한 대학문화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둘째로는 캠퍼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캠퍼스내의 기독교인들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셋째는 이 일은 대학 내의 학생들을 위한 모임이요 운동이지만 대학 밖의 교회들이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 2. 기독교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997년부터 시작된 서울대학교 기독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기독교 대학생운동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대학에 갓 입학한 기독교 신입생들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들의 대학생활을 시작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앞으로 전개될 대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해주시심을 구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함이 승리하는 대학생활의 비결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섰다. 그리고 기독교 교수들과 기독교신입생들의 교제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 간의 교제가 영적 생활에 긴요함을 생각하였다. 이종용 장로가 이 일을 구상하고 제안하였다. 기독교 교수들과 기독교 학생연합의 대표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기독교 교수들과 기독교 학생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그리고 기독교 학생 선배와 후배가 만남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런 일이었다.

준비위원회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 일을 위한 기도팀이 구성되고 여기저기에 기도부탁을 하였다. 2박 3일의 기독교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들 말고도 300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구상했다. 이 기간 동안 30명 정도의 기독교 교수들이 참여했다면 하는 기대를 가졌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1997년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1월 16일 국민일보의 광고를 통하여 전국에 알렸다. 그리고 우편을 통하여 1만 5천 교회에 이를 알렸다. 2박 3일의 모임에 재학생과 신입생을 합하여 310여명이 참석했고 50분의 기독교 교수들이 참석했고 선교단체의 간사들을 포함한 4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약 400여명이 모여 은혜롭게 이 모임을 진행하였다.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기독교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 속으로 확산되었다.

3. 교직원 신우회

서울대학교의 일반 교직원을 위한 기독인 모임이 출발된 것은 1990년 8월 18일의 일인데 이종용 집사가 처음부터 이 일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내의 일반 교직원이 1400명 쯤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점심 시간에 모여 예배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서울대학내의 기독인 교수 모임이나 학생들의 모임과 연합하는 일들도 하였다. 회원들 가운데는 열심이 특심한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그리고 집사님들도 있어서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종용 장로가 1991년 3월 장로로 임직 받은 후에는 신우회에서 여러 해 동안 설교를 맡아 인도하였다.

V. 행인으로 거류민으로

1. 참종은교회와 신촌 선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울대에서 자기가 했던 전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마음이 전도의 열정으로 불붙어서 꺼지지 않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음을 대학총교회 첫 번째 목사이셨던 이진태 박사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진태 박사가 이종용 장로에게 신학을 공부할 것을 강권하였다. 그리고 그가 교장으로 일하던 개혁신학연구원 신학교에 입학할 것을 추천하였다. 1998년 신학공부의 마지막 학기는 충북 음성에 있었던 개혁신학연구원에서 공부를 하여야 했는데 그 때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사역의 임지를 신촌으로 정하였다. 신촌은 그가 나고 자라고 성공을 맛보고 실패의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데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촌으로 정하였다. 이화대 연세대 서강대가 가까이 모여 있는 곳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젊은 영혼들이 신촌에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종용 목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실로 이종용 목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10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 돌로 된 집을 짓지 않았다. 장막에 거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행인으로 거류민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았다.

2. 그리스도대사단 교육훈련원

그가 그리스도대사단 교육훈련원에서 학생들과 기거하면서 그 교육의 책임을 맡아 여러 해 동안 헌신했던 일들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오늘처럼 사회가 원자화되고 이기적 개인주의가 젊은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때 성도의 교제, 성도들의 공동체적 삶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던 젊은 신학자 본혜퍼가 그의 제자들과 항상 같이 기거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교육을 하였다. 나찌 지배가 시작되고 교회적으로 보아 어둡고 힘든 때가 왔다. 그 때 시작된 고백교회에서 운영하던 핀켄발데라는 지역에서 문을 연 작은 목회자 훈련원의 교장을 본혜퍼가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는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6개월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신앙훈련을 받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여기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종용 목사 역시 대학생들의 공동생활을 통한 신앙훈련을 위하여 봉화산 자락 떡골에 있었던 그리스도대사단 교육훈련원에서 여러 해를 살았다. 이 건물을 지어 이 일을 하게 해준 이흥수 목사 내외분께 늘 감사하였다. 육사의 교수로, 학자로, 육사생들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종용 목사의 말년에 관악산 밑 서울대학 근처 고시촌이 자리한 대학동에 아리랑 컵밥 집을 운영했던 일이 있었다. 밥과 반찬을 하나의 컵에 담아 한끼 식사

를 간단히 때울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Take Out 간이음식점이었다. 구멍가게처럼 한 6-7평쯤 되는 작은 매장에 두 명의 직원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을 맡아 하였다. 사모님도 말렸고 가까운 많은 이들이 말렸다. 나도 말렸다. 이종용 목사에게 이 구멍가게가 타당키나 한일인가?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여야 할 정도로 건강도 나빠 있었다. 이제 나이로 보아서도 이일을 하기에는 노인 아닌가?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 선교의 열정으로 아직도 불타고 있었다. 다름 아닌 그가 이미 그 곳을 떠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맡아서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대사단 교육훈련원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안정적인 신앙훈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언제든지 입소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어 동기를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리랑 컵밥 집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렇게 쓰고자 하였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종용 목사와 아리랑 컵밥 집 모두를 받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VI. 마지막 나는 이야기들

2017년 5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 늦은 오후 서울대 호암관에서 식사를 같이하고 나오면서 사람이 없어! 인물이 보이지 않아! 우리 기독교학생들 가운데 인물이 나와야 돼, 우리의 책임이야! 하던 생각이 새롭다.



지난 9월 16일 주일 저녁 대학총교회 장로들이 목사님 댁 근처 한 식당에서 목사님과 만났다. 같이 저녁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잊히지 않는다. 선교센터를 지어야 돼! 총감독은 내가 할게, 장로님들 힘들 내세요 하며 독려하던 모습이 새롭다. 1994

년 11월 대학총교회 20주년 기념 예배 때 그가 앞으로 지어져야 할 선교센터의 설계 조감도를 진리는 나의 빛 1면에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나 24년이 지난 오늘이나 변함이 없었다. 그는 항상 젊었다.

이종용 목사님 소천하고 장례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날 11월 29일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 묘비에 적어 넣을 성경구절 하나를 택하여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다.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고 영감을 받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라는 찬송을 썼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분들을 만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택하였다.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모든 위태하고 힘든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힘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유은상(대학총교회 원로장로)

소식

2019년 2월 23일(토)에는 대학총선교회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서울대 선교후원 및 기도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내 락구정 식당에서 진행된 행사는 찬양 및 설교, 2018년 사역보고, 기도 및 헌금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기독인 학생,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서울대학교 선교를 위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제 23회 서울대학교 새내기 신앙 OT가 은혜 안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번 OT의 제목은 “What is Love?”이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작년 12월부터 10명의 오티기획단으로 시작해 지난 겨울방학동안 다양한 선교단체와 단과대학에 속해있는 48여명의 재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했다. OT준비팀의 행정팀장은 양태명(기계12)이 맡았으며, 케어팀장은 이주원(전기16), 프로그램팀장은 한상희(화학교육15), 강하은(영어16), 홍보팀장은 이은진(전기15)학생이 맡았다. 이번 오티에는 70여명의 재학생과 19명의 신입생이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채움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제 23회 서울대학교 새내기 신앙 OT



▲ 지난 2월 28일, 제23회 서울대 새내기 신앙OT가 진행되었다.

시간	내용
10:00 - 10:30	등록
10:30 - 12:30	조별 프로그램 및 나눔
12:30 - 14:00	점심 식사
14:00 - 15:30	선택 강의
15:30 - 17:30	레크레이션
17:30 - 19:00	저녁 식사 및 교제
19:00 - 20:30	저녁 집회
20:30 - 20:45	마무리



▲ 새내기를 환영하는 웰컴팀



▲ 기독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의 특송



▲ 케어팀원들이 'What is Love?'를 개사해 안무를 맞추는 모습



▲ 조별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모습



▲ 선택강의. 처음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신앙과 학문(유요한교수님),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박연주간사님), 신앙과 진로(박준서선배님), 성경적 자존감(이지영전도사님)



▲ 저녁집회 찬양



▲ 저녁집회 말씀 이후 기도시간



▲ 예배 후 새내기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모습